

2025학년도 1학기 정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기록

일시 2025. 3. 31. (월) 19:00

장소 경영관 33B101

▼ 개회

총학생회장: 2025학년도 1학기 정기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즉 '전학대회'는 학생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 학생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전학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인준 안건들이 가결되면, 총학생회와 더불어 중앙운영위원회 학생회들에서 인준받은 학생회비를 활용하여 1학기 학생 자치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사회를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대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회의 진행 순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학대회는 정족수 확인, 개회 선언, 의장단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칙 안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안내, 그리고 전차 회의록 낭독, 보고 안건, 인준 안건, 논의 안건, 기타 안건, 건의 안건 및 질의 사항, 그리고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정족수 확인

총학생회장: 정족수 확인을 위해 대의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대답과 함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름 석 자만 불러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경우에는 위임자의 이름이 호명되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확인)

총학생회장: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는 단위를 제외한,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모두 호명 완료하였습니다. 총 재적 의원 159명 중 참석 의원 136명으로 정족수 80명을 채워 19시 22분경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기에, 출석의원이 정족수 80명보다 적어지는 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자동적으로 휴게합니다. 60분 내지는 90분 남짓으로 예상되니, 부디 출석해 주신 대의원분께서는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을 나가시더라도, 나눠드렸던 비표, 그리고 명찰은 반드시 반납해 주셔야 되며, 완전히 퇴장하시는 경우 이 역시 모두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시는 방법은 의장이 안건에 대한 표결 진행을 선포할 경우 비표를 들어 의결 여부를 표해 주시면 되며, 의결 후에 비표를 양 끝으로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꼭 밝힌 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5학년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은 제57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글로벌경제학과 20학번 정진우입니다. 서기단으로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심리학과 22학번 전준민 학우,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통계학과 23학번 허정원 학우 소개 드립니다.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총학생회칙 안내입니다. 자료집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22쪽의 전학대회 관련 회칙 조항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제55조에 의거하여 소집된 매 학기 초

정기 회의이며, 지금부터 11일 전인 3월 20일에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안건은 제56조 제2항, 제3항, 제4항, 그리고 제10항입니다. 기타 총학생회칙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48쪽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안건 상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본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대회 운영세칙도 일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회의의 용어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폐회, 회기의 끝을 말한다. 휴회, 한 회기 중 회의를 며칠 쉬는 것을 말한다. 휴게, 회의 중 잠시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회의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정회 선포 시 회의 외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논의 안건 상정을 희망하신다면 제4조 의안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조항에 의거해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차 회의록 낭독

총학생회장: 그럼 다음으로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전준민 학우께서 2024학년도 2학기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요점만 짚고 간단하게 낭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안녕하세요,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심리학과 22학번 전준민입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전학대회 자료집 51쪽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2024년 9월 9일 월요일 19시에, 법학관 2B1107에서 재적의원 154명 중 124명의 출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개회 선언 후, 의장 및 서기단을 소개했습니다. 의장은 제56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김민기, 서기단은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박지원, 인사운영국 차장 내정자 하선우 학우가 맡았습니다. 이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을 소개하고, 전차 회의록인 2024학년도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록을 낭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안건 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 안건은 총학생회 운영, 사업 보고, 후원금 결산안 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자료집 51쪽부터 54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준 안건 검토 및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준 안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인준 안건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 인준'입니다. 총학생회 국·파장 내정자 18인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으며, 출석의원 124명 중 찬성 119, 반대 0, 기권 5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준 안건은 '학생회비 배분안'입니다. '11월에 진행될 선거를 위해 제5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비용으로 학생회비 전체에서 1,600,000원을 우선적으로 제한한다. 특별자치기구에 총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고 그중 총학생회에 28%, 동아리연합회에 11%를 배분한다. 단과대학 학생회에 총학생회비의 61%를 배분한다. 이를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하는데,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에 44%, 납부 인원 비례에 23%, 학생 수 비례에 33%를 배정한다.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을 나누어 각 단과대 학생회로 추가 배분한다.'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출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1, 반대 2, 기권 8로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준 안건은 '1학기 학생회비 결산안'입니다.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 당기 학생회비, 예금 결산 이자로 받은 수입으로 대동제 배부용 티셔츠 제작에 지출하는 것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석의원 122명 중 찬성 111, 반대 0, 기권 11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준 안건은 2학기 학생회비 예산안입니다. ESKARA 실무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인준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1, 반대 0, 기권 10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준 안건은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신설', '대의기구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 명시'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0, 반대 0, 기권 11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논의 안건은 논의 및 의결 사항은 따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건의 및 기타 질의 사항으로 '재수강 학점 상한 진행 상황', '1학기 때 정수기 옆 종이컵의 장시간 부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의원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4학년도 2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20시 27분 기준 폐회되었습니다.

이상 전차 회의록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의 사항 있는 분 계실까요?

질의 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 보고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안전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보고 안전입니다. 자료집 57쪽부터 시작되는데요, 보고 안전은 총학생회 운영, 총학생회 사업 보고, 후원금 결산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총학생회 운영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임기를 시작한 직후 지금까지의 운영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중앙운영위원회 실시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임시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이후로 금일 18시에 진행된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까지 포함하여 도합 10차수 중앙운영위원회, 4차수 연석중앙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실시 현황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2024년 12월 3일 임시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2차수 중앙집행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장단 산하에 9개의 집행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9개의 집행국으로는 사무총괄국, 인사운영국, 학사정책국, 문화기획국, 인권복지국, 대외협력국, 디자인홍보국, 미디어콘텐츠국, 그리고 사회교류국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9개 집행국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차장 내정자에 대한 소개는 첫 번째 인준 안전인 '국·차장 인준 안전' 진행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괄국은 총학생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검토하는 국서입니다. 학생회비, 후원금 등 전체 예산을 집행·결산하고, 각종 공문 및 기록물을 관리합니다. 이처럼 각 국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운영국입니다. 인사운영국은 중앙집행위원회 내부 운영과 대외적 소통을 담당하는 국서입니다. 중집위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며, 학우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총학생회 소통창구 및 캐치마인드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학사정책국입니다. 학사정책국은 학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며,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불편 사항의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학우들의 의견과 총학생회의 정책을 토대로 학교 본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학사 운영 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국서입니다. 다음은 문화기획국입니다. 문화기획국은 문화와 관련된 사업 전반을 기획 및 추진합니다. 입학식, 금잔디 문화제, 대동제, ESKARA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총괄하며, 이외에도 학우들의 캠퍼스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기획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인권복지국입니다. 인권복지국은 학우들의 인권과 안정이 보장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사전 인권 교육, 배리어프리 정책 등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교내 시설 및 환경 개선, 이동 수단 개선 등 다양한 학생 복지 사업 등을 총괄하는 국서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입니다. 대외협력국은 외부 업체 및 지역 사회와의 협업, 제휴를 통해 학우들을 지원합니다. 기업과 프로모션을 유지하여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학교 행사 및 학우들의 학교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디자인홍보국입니다. 디자인홍보국은 총학생회 공식 소통창구를 통한 홍보 기획을 총괄합니다. 총학생회의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을 구상하는 모든 시각화를 담당하며, 총학생회 행사의 홍보물과 굿즈 제작 등 전반적인 브랜딩 업무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콘텐츠국입니다. 미디어콘텐츠국은 총학생회 행사 및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 단계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감 있는 사진 촬영을 통해 사업 및 행사의 모습을 공유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교류국은 졸업을 앞둔 학우들과 사회에 진출한 동문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졸업 행사 전반을 총괄하고, 다양한 동문 대상 사업을 시행하여 동문과 학우들을 잇는 성균인 네트워크의 형성 및 학우들의 사회 진출 지원을 담당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총학생회 사업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보고는 조은채 부총학생회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디자인학과 20학번 조은채입니다. 지금부터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학생회가 진행한 41개의 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집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생사회, 소통 및 정보 제공 그리고 학업/학사에 관련된 1번부터 17번까지의 사업 보고를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인권/복지, 문화/브랜딩 및 제휴 사업 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발언권을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사회에 관련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학생사회 협력 사업: SCATCH PROJECT'입니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학생회의 협력 사업은 이전부터 몇 차례 추진된 바가 있으나, 긴 논의와 다소 미약했던 협력 관계로 인하여 추진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올해는 등

록금 인상 현안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예산기획팀 실무회의 진행, 총학생회 주도의 단과대학 문장 제작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학생사회 내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생사회에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단위가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자유전공계열 신설에 대한 대응'입니다. 2024년도에 도입된 자유전공계열 신입생 선발 제도와 관련하여 학교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자유전공계열 대응 TF를 구성하여 자유전공계열 신입생 선발 제도에 대해 학부 대학 미팅, 자유전공계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논의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유전공계열 입학생들의 행사 참여 문제 및 기존 원전공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학생단체 협의체 신설'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특색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생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단체 협의체를 신설하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모든 단체와 만나 회의를 진행하며 각 단체와 함께 추진할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대규모 설문조사 ASKk:U'입니다. 13년 만의 등록금 인상을 마주한 올해, 등록금 체감 환원을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 학우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총학생회에서 1년간 집행할 사업들의 추진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각종 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자 총학생회 주관 대규모 설문조사인 ASKk:U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신규 KINGO-M 디자인 개편 설문'입니다. KINGO-M은 성균인 모두가 사용하는 필수 애플리케이션인 반면 그동안 여러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KINGO-M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성균관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편하고자 정보통신팀과의 미팅을 통하여 4가지의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통/정보 제공에 관련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총학생회 카카오톡 채널 신설'입니다.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총학생회 온라인 소통창구의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학우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총학생회 홈페이지 FAQ 개설'입니다. 총학생회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들어오는 여러 문의 중 '자주 묻는 질문' 구성을 통해 학우들로 하여금 더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ESKARA 라운지 상설 소통창구 설치'입니다. 학우들과 원활한 소통과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총학생회 소통창구가 비교적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음에 오프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함을 느꼈고,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합하고 소통하고자 오프라인 접근성이 높은 학생회관 3층 ESKAR라운지 내에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총학생회 오프라인 소통창구 캐치마인드'입니다. 총학생회장단과 각 국서가 오프라인으로 학우들을 만날 기회가 부재함에 총학생회는 학우들이 언제든지 편히 다가올 수 있는 단체라는 점을 전달하고 비대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웠던 불편 사항들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경영관 필로티에서 총학생회의 각 국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총학생회장단과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총학생회 정보 전달 사업 스캐치 가이드'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교내의 분산된 정보들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시설, 학사, 소통, 문화 등 학우들의 학교생활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 분야들의 핵심 정보를 정비하여 직관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GLS-[장학영역] 페이지 신설 안내'입니다. 기존에는 교외 장학금 관련 공지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정보를 빠르게 접하지 못해 기간을 놓쳐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장학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GLS 내 장학영역 페이지 신설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학생 지원 교외장학금 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유형이 확대된 내용을 학우들에게 공유하고, 장학금 수혜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올해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 학생 지원 교외장학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사업은 '2025학년도 1학기 운동장이용협의회'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평일 운동장 사용 시간 배정을 위하여 교내 각 운동 동아리의 대표자들 간의 운동장 회의를 진행 및 조율하였으며, 신설된 대운동장 라커 룸 배정 및 사용 규칙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업/학사에 관련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업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응'입니다. 학부 등록금 확정, 2024년도 결산안 검토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중 학부 등록금 인상안이 제시됨에 따라 성균관대학교 전 학부생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학우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 학부 등록금 최종 의결 시까지 현황 대응을 이어갔으며, 학부 등록금 의결 이후로도 학우들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환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세부 진행에 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은 'SKKU-BA-DIVE 확대/개편'입니다. 교과 외 역량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험에 기여하는 비교과 장학금의 강화가 필요함을 깨닫고, 원취지가 퇴색되어 가는 'SKKU-BA-DIVE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편을 이뤄 학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업은 '2025 수강신청제도 변경'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T/O 부족 문제와 늦은 수강신청 일정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전 수강신청을 통해 강좌에 대한 학생 수요를 교강사에게 일괄적으로 전달하여 유동적인 조기 증원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사업은 '제1차 교학 정기회의의 진행'입니다. 2024년도에 도입된 교학 정기회의를 통해 학업 분야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교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업 분야 이외의 여러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학 정기회의의 안건을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사회, 소통 및 정보 제공 그리고 학업/학사에 관한 사업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과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사업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복학생 안내서'입니다. 복학 전 확인해야 하는 학사 일정 및 행정 사항 등을 안내하여 복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복학생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복학생 안내서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사업은 '2025 인권 매뉴얼&인권 침해 사례 조사'입니다. 각종 행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폭력 등의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성균관대학교 학생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며 평등한 학내 문화 조성을 위한 기준에 대한 교육자료로 인권 매뉴얼을 제시하고, 기존에 분기별로 진행하였던 학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상시 진행하여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사업은 '인스타그램 대체 텍스트 도입'입니다. 시각장애 학생 및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학우들의 원활한 정보 습득을 보장하기 위해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SNS 및 홍보 매체에서 시각적 요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 텍스트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입학식, 금잔디 문화제 안내 자보에 대체 텍스트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사업은 '교내 자판기 점자 스티커 부착 및 핸드레일 점자 촉지판 설치'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위치에 배치된 교내 음료 자판기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각 장애인 학우분들의 접근성을 강화, 건물별 핸드레일 점자 촉지판 설치를 통해 건물 내 이동 시 위치 및 층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내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사업은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간식 배부'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는 학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 배부를 진행하며 1,000여 명의 학우들을 대면하고 학우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총학생회 스캐치의 사업을 소개하는 품로드 <겨울의 스캐치>를 설치, 붕어빵/과자/컵반 등 다양한 품목을 통하여 학우들의 시험기간이 든든할 수 있도록 응원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사업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프로젝트'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제한적인 기숙사 수용인원 및 높은 입사 경쟁률로 인하여 자취를 선택하는 학우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금전, 치안, 안전 및 환경 문제 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주거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자취생활을 시작하는 학우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 마련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스물네 번째 사업은 '2025년도 동계 학위복 대여 사업'입니다. 2025년 2월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성균관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통 학위복 대여를 진행함으로써 성균관대학교만의 특색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사업은 '2025년도 졸업앨범 촬영 및 제작 업체 선정'입니다. 졸업생들의 소중한 대학 생활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졸업앨범 제작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고품질 촬영 및 편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통해 졸업 앨범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졸업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사업은 '낙후 시설 전면 개선 사업 Campus plus+'입니다. 지난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응답 분석 결과, 시설 보수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는 의견,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은 교내 낙후 시설들로 인해 재정 운영 및 등록금 환원에 있어 학교 본부에 낮은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견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전체 학부생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 의견을 기반으로 시설 보수 및 개편 방안을 도출해 내하고자 하였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사업은 '양심 생리대 사업'입니다. 학우들이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던 해당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토대로 기존 6곳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양심 생리대함을 11곳으로 설치 장소를 확대하여 긴급한 상황에서의 생리대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균관대학교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구성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문화와 브랜딩에 관련된 사업, 학우들에 실질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제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사업은 '2025학년도 입학식'입니다. 신입생들을 처음 마주하는 행사에서 성균관대학교만의 특색을 담아 신입생들의 소속감과 애교심을 고취하였으며, 청량, 킹고 응원단 및 교내 소속 동아리와 소모임 등의 공연을 통해 각 단체, 동아리 및 소모임의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사업은 '입학식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업로드'입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대학 생활의 첫 행사로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자 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입학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와 홍보 효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서른 번째 사업은 '2025 금잔디 문화제'입니다. 2025 을사년을 맞이하여 푸른 뱀과 봄의 분위기를 컨셉으로 새로운 학기를 활기차게 맞이하며 금잔디 광장의 특색을 살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균관대학교 고유의 학생 문화를 확립하였습니다.

서른한 번째 사업은 '2025 성균관대학교 굿즈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오랜 기간 본교 브랜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지점이 존재하며 기존 성균관대학교 굿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 성균관대학교의 정체성과 전통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리고자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른두 번째 사업은 '단과대학 문장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 꾸준한 브랜딩을 통한 성균관대학교라는 큰 소속감에서 나아가 학우들의 단과대학에 대한 소속감 고취가 필요함에 따라, 단과대학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을 통해 성균관대학교의 전통과 가치를 반영한 브랜딩 요소로서의 단과대학 문장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른세 번째 사업은 'SKKU X 포토이즘 촬영 부스 설치'입니다. 학위복 대여 기간에 맞추어 졸업생들이 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개강 전,후로 졸업생 외에도 많은 재학생 학우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교내에 셀프 촬영 부스를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휴에 관련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 사업은 'SKKUPASS 성균인 멤버십 제휴'입니다. 재학생과 신입생 학우들에게 학교 주변 상권을 소개하며,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과 대학 간의 상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서른다섯 번째 사업은 '전시 관련 제휴'입니다. 학우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디뮤지엄] 취향 가옥 앵콜 프로모션, [대림미술관] 케이이치 타나야미 프로모션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사업은 '의료 관련 제휴'입니다. 건강검진, 의료 플랫폼 등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학우들의 비용 절감을 위한 제휴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베스트 검진센터, 원모아파트너, 밝은성모안과와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사업은 '학업 관련 제휴'입니다. 어학을 포함한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고시/전문직 준비 등 학업 분야에서 학우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영단기, 공단기, 시대인재와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사업은 '롯데시네마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학우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은 혜택으로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사업은 'Adobe Creative Cloud Named License 모집'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등 어도비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매달 20,000원 이상의 라이선스 구독료 지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학우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만큼 구독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마흔 번째 사업은 '흑백공간 혜화점, 시에나 스튜디오, 오늘 우리 사진관 제휴'입니다. 학위복 대여 사업 기간 외 성균관대학교 전통 학위복을 대여할 수 없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시로 성균관대학교 전통 학위복을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와 제휴를 체결하였습니다.

마흔한 번째 사업은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제휴'입니다. 학우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 및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혜택으로 제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총 41가지의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대의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발언하실 때 소속 단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3~4학년 대표 이준범: 스물세 번째 사업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프로젝트'에서 4~6월에 혜화동 주거 환경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총학생회장: 질문하신 내용이 4월에서 6월에 되어 있는 혜화동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맞으실까요?

사회복지학과 3~4학년 대표 이준범: 네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해당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 보시면 '혜화동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종로구 연계도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화동 주거 환경이라고 해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겠으나, 저희가 우선 범위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생 그리고 치안 등과 관련한 보다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종로구의 다양한 유관 기관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선 대학생 순찰대 '스쿠가드' 운영 이외에도, 치안 관련해서 예를 들면 CCTV라든지 가로 등 확충 등과 같이 밤에 자취를 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혜화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해당 치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종로구청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차주에 종로구청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종로구청장과 유관 부서들과 함께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학과 3~4학년 대표 이준범: 위생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총학생회장: 혹시 학우님께서 자취하시나요?

사회복지학과 3~4학년 대표 이준범: 네.

총학생회장: 새벽에 보면 항상 쓰레기가 제대로 처분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악취가 심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음을 아마 학우님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전에 2023년도 총학생회였던 'SKKUP'에서 종로구청 간담회를 진행할 당시에 재활용 분리수거 정거장 설치 등과 같은 정책을 논의하다가 실제로 집행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우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종로구청에서 미화를 담당하는 유관 부처와 함께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사회복지학과 3~4학년 대표 이준범: 네.

총학생회장: 감사합니다. 혹시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고 안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후원금 결산안입니다.

후원금은 총학생회가 학생회비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풍부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외부 기업 또는 여러 기타 외부 단체, 학내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후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매 학기마다 후원금 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학기 학생회비 결산안으로, 저희 임기를 시작하고 후원금을 처음으로 사용한 작년 12월 1일부터 3월 29일 자 기준까지의 결산안입니다. 일단 수입으로 전기 후원금 이월금 1,259,494원, 제휴 광고비 18,501,000원, 대학원 총학생회로부터 1,200,000원, 학위복 대여사업 연체료 1,200,000원, 학위복 대여사업 연체료 1,439,000원, 금잔디 문화제 굿즈 수

입 407,000원, 그리고 예금 결산 이자 2,584원을 더해 총 22,809,078원입니다. 여기서 제휴 광고비의 경우 업체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조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익 내역을 공개할 수 없기에 이 점 양해의 말씀 미리 구합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식 배부로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간식 배부에 2,420,000원 지출했고, 금잔디 문화제 굿즈 제작에 1,731,580원, 금잔디 문화제 진행에 1,731,580원 지출했습니다. 또한 겨울 학위복 대여사업 실무단 식사 제공으로 1,133,600원이 지출되었는데, 해당 금액은 저희 수입에 대학원에서 1,200,000원 후원해 주신 금액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학위복 대여 사업을 진행하면 학부 총학생회에서 대학원생들의 학위복까지 총학생회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총에서 식비로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결산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신 대의원분 계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준 안건

총학생회장: 다음은 인준 안건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산하 9개 집행국의 국장, 차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도록 회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정한 국장, 차장들이 인준을 받기 위해 대의원분께 직접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준을 받고자 하는 국장, 차장 내정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집행위원장은 국장 중 1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임명합니다. 그럼 18인의 국·차장 내정자를 대의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차장 내정자 소개)

총학생회장: 국·차장 내정자께서는 단상에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 국·차장 내정 인준 안건에 대해 질의 있으신 대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회의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의결 소개를 하면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표명을 하고 싶으신 의견에 기표를 맞춰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기표를 들어주시고 나서 양 끝 쪽에 계신 저희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 비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를 각 좌석의 양쪽 복도로 모아주시면 저희 의결 도우미가 비표를 모아서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표만 내주시면 됩니다. 집계하는 동안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기 중앙집행위원회 국·차장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의결 도우미가 비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권하시는 대의원께서 비표를 들어주시면 비표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중에 비표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반드시 넘겨주셔야 됩니다. 집계하는 동안 다소 시간 소요가 있을 예정인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계)

의결 집계 완료되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 인원 135명, 찬성 1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결 도우미께서는 비표를 다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의원께서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 도우미께서 비표를 다시 나눠주시는 동안 다음 안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5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배분안입니다.

먼저 배분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는 캠퍼스로 구분되지 않는 자유전공계열 회원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배분 기준에 대해선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를 제외한 총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는데, 특별자치기구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있으며 각각 28%, 11%를 배분받습니다. 남은 61%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배분받습니다. 이를 단과대학 배분액이라 칭하는데, 단과대학 배분액은 기본 배정액, 납부 인원 비례액, 학생 수 비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배정액 44%, 납부 인원 비례액 23%, 학생 수 비례액 33%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세부 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법과대학 단과대학 배분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과대학에 장기 등록생이 계시기에 현재 재학 중인 학우분을 고려하여 법과대학에 학생회비를 배분하되, 실질적으로 법과대학에 학생회비가 배분할 필요가 떨어지기에 관례적으로 해당 학생회비는 남은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나눠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 배분 기준입니다. 자유전공계열 학생의 경우 캠퍼스 구분 없이 본회의 회원으로 소속 되기에,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아닌,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난 3월 10일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 배분 방식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자치기구에 자유전공계열 학생회비의 39%를 배분하는데,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에 28%, 동아리연합회에 11%를 배분합니다. 그리고 각 캠퍼스회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 해당 금액의 50%를 나눕니다. 남은 61%를 단과대학 학생회가 배분받으며, 이를 자유전공계열 단과대학 배분액이라고 칭하며, 자유전공계열 단과대학 배분액은 학부대학 수요조사 비례액, 2024학년도 대비 인원 증감 비례액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대학 수요조사 비례액 50%, 2024학년도 대비 인원 증감 비례액 50% 각각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자료집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부대학 수요조사 비례액의 경우 자료집 217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학부대학에서 자유전공계열 등록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 중에 실시한 전공 진입 희망 학과 수요조사를 토대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자료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내부 기밀 자료로 분류한 상태이기에, 구체적인 수치 공유하는 현시점에서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아 부득이하게 해당 항목에 따른 수치를 공유 드릴 수 없는 점 의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단과대학 학생회비가 정해지는데, 자료집 쪽을 보시면 학생회비 배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비 14,714,000원, 동아리연합회 5,780,500원입니다. 단과대학 합계는 31,791,389원이며, 단위별로 단과대학 학생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대학 1,978,647원, 문과대학 5,219,181원, 사회과학대학 4,930,869원, 경제대학 3,979,751원, 경영대학 5,081,410원, 사범대학 2,636,234원, 예술대학 3,623,747원, 글로벌리더학부 2,089,104원, 글로벌융합학부 2,252,446원으로 전체 합계 53,600,000원입니다. 소수점 아래의 금액은 편의를 위해서 생략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11원은 추후 총학생회비로 편입될 예정임을 밝힙니다. 해당 배분액은 최종 등록 및 중도 휴학 등으로 인한 최종 학생회비 납부 현황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 결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대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진행하기 전에 비표 안 받으신 분 계신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비표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모든 대의원께서 비표 받으신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안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한다.'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선 의결 절차와 마찬가지로 비표는 양쪽 끝 복도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의견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학생회비 배분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해당 안건 인준에 반대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의견을 표명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집계하겠습니다. 혹시 비표를 아직 갖고 계신 대의원분 계실까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집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비표 받으실 때 2개 받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중간에 퇴실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해당 부분 확인하다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계)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32명 중, 찬성 1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의결 집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퇴실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 관련해서 의결 표명 결과를 저희가 파악하기 다소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집계하는 동안에는 중도에 퇴실하거나 혹은 잠시 동안 퇴장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5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입니다. 의결 도우미께서는 비표를 다시 우리 대의원분들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 관련해서 우선 수익은 제57대 중선관위 이월금으로 961,650원,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으로 1,840,695원, 당기 학생회비 14,714,000원, 예금 결산 이자 402원을 더해 수입 총계 17,516,747원입니다. 당기 학생회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폭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대여 사업 물품 교체 및 추가 137,130원, 대동제 실무 비용 6,869,770원, 차기 이월금 9,209,847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300,000원 편성하여 지출 총계 17,516,747원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재정 운영세칙상 예비비를 학생회비 예산 총액의 10%까지 들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지출 내역에 대해 별첨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대여 사업 물품 교체 및 추가'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오피스아워, 즉 총학생회실 상주 업무를 매주 평일 10시 20분부터 17시 50분까지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우 분들께서 대여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후화되

는 품목들도 있고, 분실되는 물품들도 있어서 몇 품목을 새로 구비하려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대동제 실무 비용'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대동제가 진행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성균관대학교 문화의 핵심적인 축이었던 대동제의 명맥을 이어 보다 특색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성균관 학생 문화 발전의 핵심이 되는 대동제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학생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은 대동제 예산안으로서 한 달가량 남은 대동제에 필요할 것으로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품목의 예산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에 확정 사항이 아니기에 2학기 전학대회에서 결산 진행 시 학생회비 결산안을 확인할 경우, 내용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 총학생회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출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사항 있는 대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발언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2025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을 인준한다.' 에 찬성하시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 끝 복도로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기 '2025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예산 편성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즉 반대하는 대의원께서는 비표를 들어 양 끝 복도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권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 양 끝 복도로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비표 갖고 계신 대의원분 계실까요? 그럼 이 역시 의결 집계하는 동안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계)

의결 결과 집계 완료되어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34명, 찬성 1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도우미께서는 다시 비표를 대의원분들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논의 안건

총학생회장: 다음은 논의 안건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정한 논의 안건은 없습니다. 혹시 논의 안건을 발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기타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타 안건

총학생회장: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기타 안건은 전공과목 T/O 확대 사업 시행 안내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하오니 잠시 시간 내시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S:CATCH는 선거운동본부 시절부터 학우 여러분께 학생사회 내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질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중앙운영위원회 단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단과대학 문장 제작 프로젝트, 등록금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기획팀-중앙운영위원회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사회 내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12일,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학생사회 협력 사업: SCATCH PROJECT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SCATCH PROJECT는 기층 단위 학생회들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CATCH PROJECT의 일환으로 기획된 사업은 총 두 가지로 교내 낙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Campus plus+ 사업, 전공과목 T/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earning plus+입니다. 현재 Campus plus+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며, Learning plus+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를 넘어 학과 학생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학과 학생회장단께서 자리해 주신 이 자리에서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안내 드리려 합니다.

본 사업은 학과별 전공과목 T/O 부족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매년 임기 초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전공과목 T/O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Survey에 이어 올해 실시된 ASKk:U 응답 내용을 분석하며 저희는 전공과목 T/O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학교 본부와의 미팅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본부 또한 학생들의 불편함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공과목 T/O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다만, 강의 개설 및 수강 인원의 조정은 교강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에 학교 측의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과/학부/단과대학을 아우르는 기층 단위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과장 및 학장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설문 분석 결과 T/O 부족 원인은 학과별로 상이했습니다. 복수전공생이 많은 학과, 졸업을 위한 전공필수 과목이 많은 학과, 과목별 수강 인원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학과, 전임 교수가 부족한 학과 등, 각기 다른 사정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Learning plus+ 사업을 통해 학과별 T/O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과 학생회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히신 전 학과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앙운영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사회의 공식적인 요구로서 학교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규모 있는 협력 사업의 진행으로 전공과목 T/O 확대와 관련하여 학과가 단독으로 요청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학교 측에 행사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공론화하고 학교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장단은 금일 총장과의 공식 미팅인 '담대한 대답' 자리를 가져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총학생회가 학교와 기층 단위 학생회의 중간에서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며 상호 조율하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집행에 추진력에 힘을 실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지난주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단위운영위원회 사업 기획안을 전달하고, 4월 1일까지 각 단위에서 사업 참여 여부 및 자유 의견을 수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 해당 사업에 대해 대의원 여러분께 공유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모든 분께서 한자리에 모이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인 저는 22년도 글로벌경제학과 학생회장 재임 시절, 그 당시 총학생회였던 'Spring'에서 진행했던 도전학기 정규교과 프로그램 개선 사업에 함께 참여하던 중 도전학기 과목과 더불어 일반 전공과목과 관련한 확대 필요성을 함께 학과장께 전달하고 실제로 과목 개수 및 T/O 증원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3년도 경제대학 학생회장을 하며 학장께 전공과목 T/O를 늘릴 것을 건의하여 이 역시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층 단위 학생회에서 의지를 갖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실제로 학과별 과목 T/O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총학생회의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심층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학과 학생회 여러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총학생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도울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사업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공과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과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해당 사업 관련해서 건의 사항 혹은 질문 사항 있으신 분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언하실 때 직책 그리고 성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서한희: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서한희입니다. 조금 논의에서 벗어난 이야기일진 모르겠으나 관련이 크게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다른 과목 다른 학과나 단위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국어국문학과와 경우 전공 과목 T/O가 부족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공과목 T/O가 부족한 과목들은 2전공이나 3전공을 그 과목으로 두고 있는 복수 전공생들이 많은 과목일수록 T/O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문과대학에서는 그렇지 못한 과목 전공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과 학우들의 요구 사항은 전공과목 T/O의 증원이 아니라 필수 과목 예를 들면 글로벌 과목이나 혹은 DS 과목들의 T/O를 훨씬 필요로 느끼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과목, 'ASKk:U' 설문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본인 학과 전공과목 T/O에 대한 불만족 의견을 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응답자들의 불만족 사항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와 별개로 전공과목 TO가 아닌 필수 과목 T/O의 증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학생회장: 네 해당 부분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SKk:U' 설문 응답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전에) 제가 해당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전공과목 관련 불만족 외에도 전공과목 이외에도 저희가 해당 설문조사 구성을 했었을 때 전공과목 자체가 그냥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학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수 과목들 중에서도 전공 과목, 그리고 교양 과목 관련된 불만족도 굉장히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공과목 T/O 확대 사업을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작년도 총학생회였던 'SURE!'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공과목 T/O 확대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의견 수합을 받아서 학교 본부 측과 논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무팀과 논

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강사의 재량에 의해 전공과목 T/O를 이제 조정하는 것 외에는 크게 학교 본부 측에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고 아무래도 문과대학 측의 사정은 저희가 지난 중앙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사실 문과대학 이외에도 전공과목 T/O 쪽 보다는 다른 쪽에 문제가 조금 더 심하다는 의견도 받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해당 사업 자체는 보다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전공과목 T/O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외에도 교양 과목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필수 과목들 중에서도 전공과목, 교양 과목과 관련된 의견들도 함께 나눔으로써 단순히 전공과목들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 등 다른 과목들 관련 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전공과목 T/O 확대 사업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 모두 다 수합을 해서 교무팀 측과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학과 측 사정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모두 다 수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모두 다 파악을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분들께 부탁함으로써 학과별 사정을 조금 더 취합하고 이에 맞추어서 이제 총학생회 측에서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과목 T/O 확대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많은 학과는 이에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이며 그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 중에서도 불편 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 관련해서 다른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고 그것 외에 교양 과목 등과 같은 문제들은 저희가 지금 꾸준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실 전공과목 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총학생회 정책 중에서 온라인 강의 과목 확대 그리고 이제 무제한 아이 캠퍼스 T/O 등과 같은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자유전공계열이 도입됨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도 보다 중요하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개선함으로써 교양 과목들 역시도 T/O 문제 혹은 그 과목 자체에 대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컴퓨터교육과 학생회장 하준서: 우선 전공과목 T/O 확대 사업 시행에 대한 안내를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 교원 양성 기관 평가 기간에도 증가된 T/O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사범대 교원들과 합의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대 평가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T/O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 단과대 차원에서 통일된 양식의 구급품을 배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별로 품을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범대학 T/O가 제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측에서 먼저 파악할 수 없었던 부분 같습니다.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사범대학 학생회 측과 논의를 진행해서 검토한 이후에, 만약 실제로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T/O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보다 빠르게 문제들을 조금 더 파악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과대 차원에서 통일된 양식을 배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것을 왜 학과 차원에서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해당 부분은 이미 몇 분의 대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과별 사정은 각각 상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학생회에서 통일된 양식을 배포하게 됐을 때 실제로는 학과의 사정에 맞지 않는 응답이 구성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도 한 번 논의해 본 결과 저희 측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학과 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학과에 맞춘 설문 응답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일까지 각 중앙운영위원회 분들에게 요청을 드려서 참여하실 학과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여해서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으로서 저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공과목 T/O로 확대 이외에도 과목과 관련해서 이제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고 싶으신 단위 분들께서 계시다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관련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 모두 반영해서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의 및 질의 사항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건의 및 질의 사항입니다. 혹시 건의 사항 및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시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서한희: 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서한희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아까 사업 보고에서 나왔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 질문 및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아까 제가 너무 열심히 읽다가 사실 회의 도중에 이제 내용을 좀 놓치기는 했는데 개요가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회의록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후 실무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지, 예정되어 있다면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회의록이 업로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 얘기를 하면 사실 등록금 인상에 관한 것은 총학생회 측에서도 인지하다시피 학생들의 재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다소 구체적이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도 5%를 가정한 가안 재원 투자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4.9%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총학생회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크게 해서 그때 등록금 책정과 관련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학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실제 재원 투자 계획이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후 실무 협의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학생회장: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의견 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 보시면 일시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예산기획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 현재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 측에서 파악했을 때 등록금 환원 체감과 직결되는 가장 큰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학금이요. 두 번째는 시설 개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원 확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의 학생지원팀 장학 파트와의 실무 논의 그리고 제1차 교학 정기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장학금 편성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금일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장학금 확대 개편안에 대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총학생회 측에서 이를 전달받으면 저희가 자료를 제작해서 총학생회 소통창구에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 개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에 광범위하고, 지금껏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시설 개선 사업은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등록금 환원 체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 개선과 관련된 일을 'Campus plus+' 사업이라는 것을 몇 달 동안 품을 들여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데요. 해당 부분 관련해서 소통창구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설문조사가 다 완료되어서 응답을 분석하여 예산기획팀 측에 내용을 이미 송부했고요. 그리고 차주 혹은 이제 다다음 주 중으로 예산기획팀 그리고 유관 단과대학 학생회와 함께 시찰을 돌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파악한 이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생지원팀과 논의를 진행하여 해당 시설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정을 짓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사실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기 이전에도 이미 학교 측에서 특정 시설은 무조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정하신 것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과캠 그리고 인사캠에서도 계속해서 건물 신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예비비를 적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자료들을 예산 계획 청구를 하고 이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들이 한 번에 즉 올해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약속드리기는 조금 힘들겠으나 지속적으로 해당 부분 팔로우 함으로써 예산기획팀 측 그리고 학생지원팀에 진행 현황을 계속해서 공유 요청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등록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지금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좀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문조사를 통해서, 특히나 등록금과 관련되어서 학교 측의 신뢰도가 조금 낮다는 의견을 저희가 조금 주로 파악할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등록금 인상 제도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학우들이 등록금이 확실하게 체감이 된다는 것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해당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요청을 드렸고, 처음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학교 측에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좀 취하긴 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공신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표한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해당 설문조사를 집계했을 때 총 2,100명 정도의 학우분께서 응답해 주셨고 해당 부분을 예산기획팀 측에 통보하고 나서 모든 학교 부처에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다 공유해서 현재 학우들의 등록금에 관련된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신뢰도가 낮고 어떤 부분에서 재원 편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학교 부처에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해당 부분 관련해서 총학생회 측과 그리고 학교 본부 측과 논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록금 인상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가계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

겔으나 등록금 인상에 따라서 국가장학금II유형을 수령할 수 없음에 따라서 우선은 기본소득 혹은 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편성하는 것을 일단은 학교 측에서 조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총학생회 장단에서는 총장님과 미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장학금 배분과 관련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등록금을 모두 다 활용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조금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해서 추후 2학기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장학금 자원 확대라든지 이후에 사업을 진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추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의견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등록금이 인상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두 달 정도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시설이라든지 장학금 편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보니까 현재 학우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약간 그 체감이 미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에서는 끈질기게 학교 측과 협상을 이루어낼 것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지속적으로 이제 공유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생기게 되면은 소통창구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폐회 선언

총학생회장: 긴 시간 동안 전학대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의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언론사 보도와 중앙집행위원회 분들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2025학년도 1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20시 49분 기준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학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수업을 결석하신 분 계시다면 화면의 QR코드 스캔 후에 구글폼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행사참여확인서는 총학생회장 명의로 발급되며, 그 인정 여부는 교강사 재량임을 말씀드립니다. 확인서 수령은 추후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